

# Paminy

2015 4월~6월 vol.09



행복하십니까?

4월, 잔인한 달을 딛고 일어서기  
팩컴코리아에 첫 발을 들이다!



## 꽃다지의 봄

황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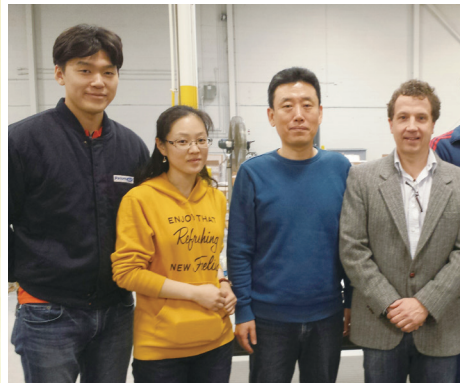
세상 가장 낮은 곳  
바싹 마른 땅을  
뚫고 올라와  
하마노랑게 꽃 피운  
키 작은 꽃다지

지난해 봄부터  
온 나라를 휩쓸고 간  
노란 슬픔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아파하지 말자!

작은 꽃다지 꽃잎이 말한다  
그래! 그래!  
노랑게 노랑게  
봄이 물들어가고  
노란 마음들이  
또다시 밀려오면  
밀려오는대로  
그냥 울고 웃자!

세상의 관심을 외면 당해도  
볼품 없이 파운  
작고 노란 꽃잎으로  
봄을 불러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을...





\* Family (Pacom Family)는 팩컴코리아에서 기획, 디자인, 인쇄하였습니다.

**Pacom**



# Contents

2015 4월~6월 vol.09

|    |        |                     |
|----|--------|---------------------|
| 04 | 공감     | 언제나 써바이써바이를 읽고서     |
| 06 | 기획특집   | 현풍이 성장기             |
| 08 | 특별기고   | 니체에게서의 위버멘쉬         |
| 10 | 팩کم소식  | Jackson 방문기         |
| 11 | 팩کم파트너 | About FedEx Express |
| 12 | 힐링로드   | 봄바람 맞으며 달려          |
| 14 | 이모저모   | 생일축하합니다             |
| 15 | 피플     | 신입 사원 이연지           |
| 16 | 피플     | 신규현 대리              |
| 18 | 공감     | 4월, 잔인한 달을 딛고 일어서기  |
| 19 | 이곳저곳   | KT Wiz Park         |
| 20 | 찰칵소리   |                     |
| 22 | 팩کم뉴스  |                     |

발행처 팩کم코리아  
 발행일 2015년 4월 1일  
 발행인 김경수  
 편집장 황철원  
 기자 이원성 박미선 주선영 이운정 최광목  
 교정·교열 이가진  
 디자인 김수희  
 인쇄 팩کمAAP





“언제나 써바이 써바이”를 읽고서

## 행복하십니까?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살면서 이따금씩(혹은 자주)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잠시 동안 뒤로 하고, 캄보디아로 봉사를 떠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다.

‘캄보디아’하면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연민이 드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캄보디아로 봉사를 떠난 사람들은 되려 그들을 통해 위안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운다. 심지어 그 열악한 환경을 떠나길 아쉬워하기도 한다. 가난해서 불편할 진 몰라도 불행한 건 아니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언제나 외친다. “써바이 써바이”라고.



### 본문 중에서 1

‘씨바이 씨바이’는 한국어로 ‘즐겁다, 행복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들 보고 ‘불쌍해 죽겠어’ 그러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자기 삶이 있다. 가난해서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닌지도 모르겠다. 캄보디아는 행복지수가 세계 5위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위가 넘는다.

저자가 캄보디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캄보디아를 만나기 전, 한국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은 그 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던 자신의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캄보디아 사람을 도와준다고 왔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책 속의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하다고.

우리는 어쩌면 틀에 박힌 행복과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에 맞추어

살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든다.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를 위해 발버둥치는 듯 하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속상해 하기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 본문 중에서 2

이들에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삶을 즐기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하고 상관하지 않는 달까. 욕심이 없고 뭘 해야겠다는 삶의 목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걸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닐까요?

캄보디아의 이러한 낙천적인 국민성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삶의 목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문 중에서 3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쫓긴다.

자신이 생각한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삶을 불행한 것으로 치부한다.

삶이 힘들어질 때 캄보디아에 한 번 가 본다면, 전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국에서 사는 게 어렵다 해도 그 힘들어 삶마저 감사하게 될 것이다.

‘잘 산다는 의미란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당신의 생각과 가치를 넘어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언제나 씨바이 씨바이하는 당신이 되길!





이름: 김현풍  
나이: 약 8개월  
성별: ♂  
품종: 풍산개

#### 현풍이애고

배만져달라고

발라당 드러누워요

웃으며 올려다보기

안기기

뽀뽀

다리에 얼굴 부비

어리광 부리기

#### 중아해요

안양천 산책

아침 인사

사람들의 웃는 얼굴

맛있는 음식

#### 현풍이 매력 포인트

눈썹

속눈썹

두툼한 입

두툼한 발

풍성한 꼬리

잡혀있는 귀

## 현풍이 성장기

작년 가을 팩컴에 찾아와 팩컴의 마스코트로 폭풍 성장한  
현명한 풍산개 ‘현풍이’를 소개합니다.

#### 현풍이의 하루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려요.

**아침 똥** 누군가 올라와서 끈을 풀어주면 밤새 참은 똥을 싸요.

**아침 인사** 경쾌한 발걸음으로 4층 사무실을 돌며 밤새 안녕하  
셨는지 안부를 물어요.

**점심 산책** 안양천을 따라 산책을 해요. 팩컴 직원들 누구나 현

풍이를 사랑하신다면 산책을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점심 식사** 산책을 하고 오면 맛있는 밥을 먹어요.

**오후 시간** 오후엔 옥상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놀아요. 하지만  
현풍이가 팩컴 건물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풍이가  
옥상 밑으로 내려가게 문을 열어 주시면 안 돼요!

**저녁** 집에서 내일을 기다리며 잠이 들어요.





#### 퐁이의 일기 / 현풍

간밤에 내린 봄비 소리에 잠을 설쳐서인지 피곤해서 아침까지 졸고 있는데 선영이 누나가 옥 상에 올라와서 목줄을 풀어주고 밥도 줬다. 사무실로 빨리 가고 싶다. 내려가면 사람들이 주는 꿀맛 같은 간식이 있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희 누나한테 맨 먼저 달려가서 뽀뽀를 했다. "우리 퐁이 왔어?" 하면서 쓰다듬어 주고 맛난 간식도 준다. 그래도 여기서 오래 머물 수는 없어! 빨리 한 바퀴 돌면서 간식을 먹어야 해! 공장 옆방 김 상무님실로 달려갔다. 언제나처럼 상무님은 빠따귀 하나를 주셨다. 급하게 먹적먹적 씹어 삼킨 후, 이따가 먹으려고 조금은 남겨두고 황 본부장님께 달려갔다. 책상 위로 두 발을 올리고 뽀뽀를 했다. 이 분은 먹을 거는 안 주... 가끔 주는 저지방 우유는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안 주나? 억사... 아사... 찹 찹 찹 우유는 너무 맛있어! 내가 태어난 인산 공장 엄마 집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들이 너무 많았던 때문일까? 갓난아기 때부터 나를 안아주던 아저씨들의 담배 냄새가 나도 모르게 좋아져버렸다. 지금도 담배 많이 피우는 창조팀 아저씨들한테 가까이 가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친근하다. 총무팀 아줌마들이 나를 구박해도 간식은 꾸준히 주셔서 그 쪽으로도 달려갔다. 간식은 언제나 맛있다. 성기 형은 늘 나를 보면 구박을 하지만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하면 "이 자식! 까불지 마!" 하면서도 웃어주신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하고 간식을 먹고 나니 목이 마른다. 개간식이라고 조미료를 엄청 넣었나? 선영이 누나 자리에 가면 항상 물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사무실 이쪽저쪽을 어슬렁 거리다가 끝방으로 들어갔다. 어, 무슨 희인을 하네? 저기 본부장님이 있다. 달려가서 본부장님 자리의 희인 탁자 위로 두 발을 올리고 꼬리를 흔들다가 조 상무님께 혼만 나고 쫓겨났다. 아... 난 목욕이 너무 싫다. 사람들이 나보고 냄새난다고 해도 목욕하니까 정말 싫다. 병욱이 형과 수희 누나 그리고 미선이 누나가 목욕을 시켜주는데 너무 싫어서 버티다가 엉덩이도 몇 대 맞았다. 벌써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 날마다 점심시간이면 수희 누나랑 미선이 누나가 개만 빌빌 봉지를 들고 내게 목줄을 채워서 산책을 가니까 빨리 점심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어! 아직 오전인데도 잠이 오는 걸 보니 벌써 봄인가보다!



1 팩کم에 처음 왔을 때 2 낮에는 사무실에서 예뻐 받아오 3 옥상에 집이 생겼어요 4 점심엔 산책을 가요 5 중성화수술을 했어요



# 니체에게서의 위버멘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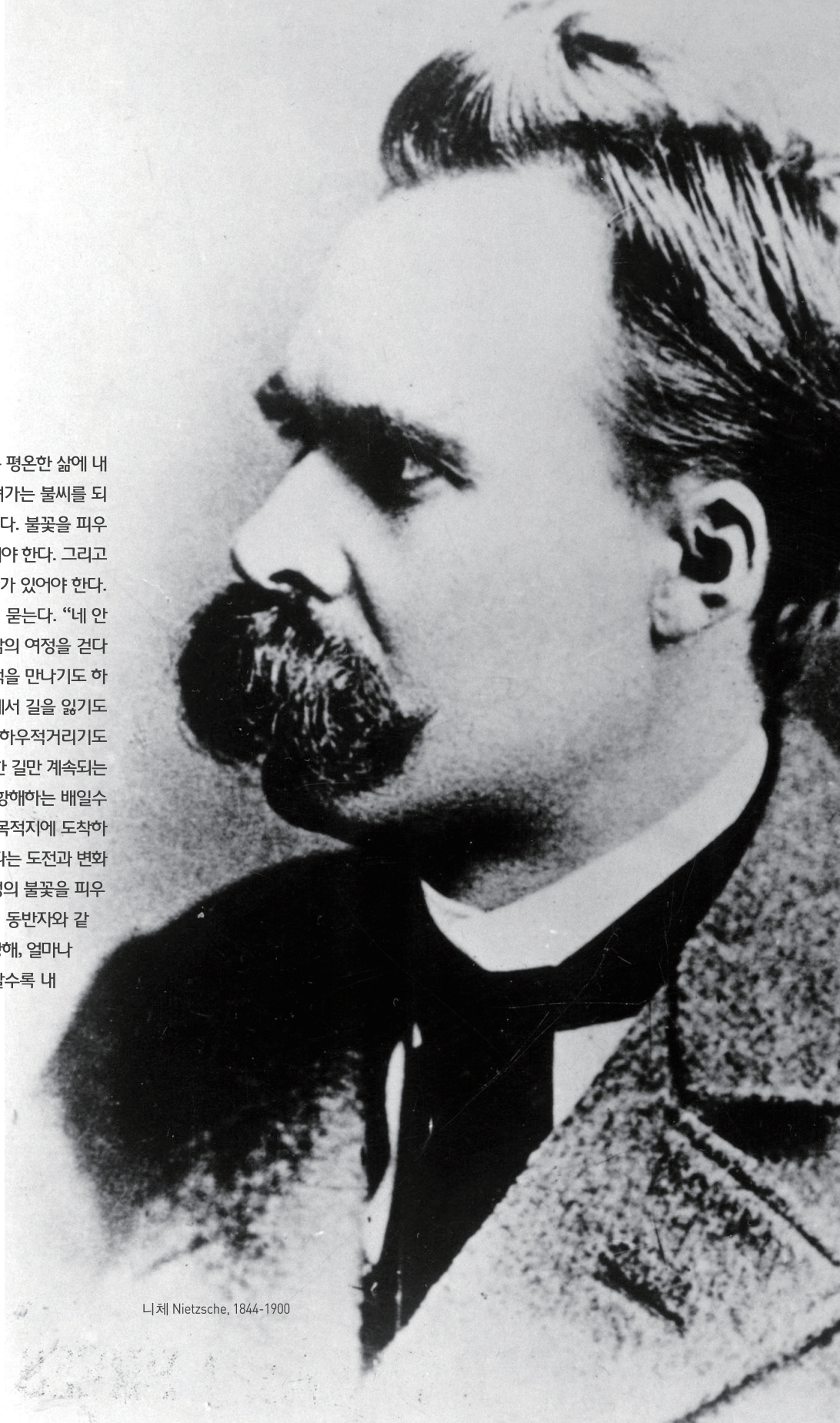
해외영업부 혁신팀 김상광 부장

우리의 삶은 우여곡절의 연속이다. 실패와 성공,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위기와 기회, 불안과 안정이 순환하며 굴러간다. 니체에게서 삶은 살아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다. 거룩하게 긍정하는 그 무엇이다. 그는 어떤 운명도 기꺼이 사랑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부정 속에서 긍정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니체는 누구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한다. 비록 버겁고 힘들어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삶과 대결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없이 남에게 의존하며 낙타처럼 수동적으로 살고자 한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니체는 ‘위버멘쉬(Übermensch)’라고 부른다. 니체가 지향하는 최고의 인간상이다. 이는 ‘인간을 넘어섬’, ‘인간을 극복함’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작은 존재를 뛰어 넘어, 보다 큰 존재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니체는 자기를 극복하는 의지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극복하게 되면 나는 위대한 일에서도 나 자신을 극복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나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가 나의 완성을 확인해주는 봉인이 되어 주리라.” 니체는 거듭해서 하루에도 열 번 자신을 극복하라고 말한다.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자기 변신의 과정이다. 또한 니체는 말한다. “너는 네 자신의 불길로 너 스스로를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하리라. 먼저 재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나길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의 나를 불살라 재로 만들어야 새로운 나로 변신한다. ‘오늘의 나’를 죽여야 ‘내일의 나’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내일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일의 나는 ‘되기’와 ‘하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먼저 되기(being)는 비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다. 즉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 ‘되

고’ 싶은 존재의 본질적 모습은 ‘되기’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하기(doing)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즉 ‘되고’싶은 존재가 ‘되기’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할 것인가는 ‘하기’에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되고’ 싶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무엇이 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되고’ 싶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혹시 지금 나는 ‘되기’ 이전에 ‘하기’만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니체의 ‘위버멘쉬’는 새로운 인간상을 설정하고, 위버멘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존의 낡은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긍정하는 삶만이 나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위버멘쉬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주하는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존중한다. 지금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새롭게 규정하는 인간만이 위대하다. 여기에서 저기로, 지금에서 다음으로, 인간적인 것으로의 끊임없는 변신과 변형을 통해서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상이 바로 니체의 위버멘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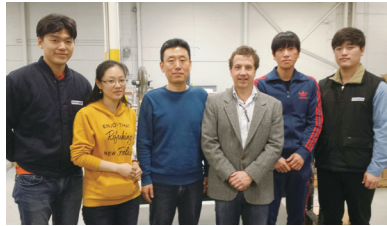
스스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즉 위버멘쉬로 도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열정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예술품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다. 하지만 누군가의 심장은 아름답게 빛나고 역동적으로 뛰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심장은 계속 작아져서 이제 뛰지도 않는 골동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심장은 뜨겁게 역동적으로 뛰라고 존재한다. 뛰지 않는 심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더 뜨거워져야 한다. 바로 열정의 힘으로 말이다. 니체는 자유로운 영혼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

을 사랑한다. 위버멘쉬는 평온한 삶에 내리치는 번갯불이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풀무같은 열정이다.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불길이 일어나려면 불씨가 있어야 한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네 안에는 불씨가 있는가?”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복잡한 가시덤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 하우적거리기도 한다. 어떤 삶이든 평탄한 길만 계속되는 경우는 없다. 장거리를 항해하는 배일수록 풍파를 만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풍파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의 불꽃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동반자와 같다. 니체는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뚫다.”고 말한다.



니체 Nietzsche, 1844-1900





Good Night board book 수선 작업을 위한

## Jackson 방문기

지난 1/21~1/30 10일간 Good Night board book 수선 작업을 위해 Pacom에서 5명의 직원이 현지 파견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다녀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40피트 컨테이너 2대로 출고했던 Good night board book 126,000부 책들이 달라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고객 claim을 받고, 수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Pacom에서 5명의 직원이 Jackson으로 파견되었습니다.

Jackson은 미국 테네시 주의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유통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곳에 위치한 Perseus 창고에서 판매로 시장에 나가있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0,000부의 수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sales 담당인 Lawrence도 수선 작업을 위해 Texas에서 8시간에 걸쳐 와 준 덕분에 총 6명의 Pacom 직원이 수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에는 현지 파견 소식을 들은 Good Night board book의 Adam Gamble의 방문으로, 오전에는 잠깐의 미팅과 함께 warehouse를 둘러보고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잡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날 진행 결과, 책의 상태에 따라 속도도 달랐지만,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수량이 많았고, 다행히 Lawrence의 도움으로 둘째 날부터는 현지 agency를 통해 현지인을 4명 고용하여, 작업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선 작업을 위해 가져갔던 나무판을 보고는 현지 창고 관리인이 추가로 2개를 만들어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지인이 힘으로 보드북을 누르면 Pacom 직원이 손으로 떼어내고, 불량을 골라내는 등의 방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나무판을 이용해도 책이 떨어지지 않는 타이틀의 경우는 일일이 손톱으로 떼어내야 했고, 나중에는 손톱이 깨지고, 나무판에 책을 누르는 작업 때문에 손이 붓고 멍 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작업은, 하루라도 더 많은 수선 작업을 하기 위해 창고가 문닫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현지에 머무르는 동안 작업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량이었습니다. 결국 PACOM 직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현지에서는 작업인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0일에 걸쳐 모든 수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량 재인쇄를 진행할 뻔했던 수량이, 그래도 현지 수선 진행 덕분에 65% 정도는 수선하여 살릴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작은 일이라도 간과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wrence를 포함하여, 현지 파견되었던 분들 모두 타이틀 한 스케줄 속에 고된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About FedEx Express



FedEx Express는 팩컴그룹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FedEx Corporation의 자회사인 FedEx Express는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 및 지역에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특송회사입니다.

FedEx는 통관서비스 및 환불보장 서비스를 포함,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전 세계 220여 개국을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Door-to-Door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FedEx Express만의 경쟁력은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155,000여 명의 종업원과 45,000여 개의 Drop-off 지점, 647대의 항공기, 47,000대 이상의 차량 그리고 FedEx Ship Manager 등의 첨단 네트워크가 FedEx Express의 네트워크 파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FedEx는 팩컴에게 경쟁사를 빠르게 압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원,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봄바람 맞으며 달려~ 달려~

봄바람 휘날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꽃샘추위가 유난히 매서웠던 터라,  
봄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흐날리는 봄 바람을 느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  
남한강 자전거 드라이브 어떠세요?

남한강 자전거 길은 옛 중앙선이 복선화 되면서 방치된 철로와 철교를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 길로 재탄생한 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역부터 능내역, 북한강 철교, 양수역, 기곡터널, 양평군 양근대교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길은 총 27km 구간에 이른다. 나는 남한강 자전거 길의 시작인 팔당역에서 북한강 철교까지 라이딩을 즐겼다.

룰루랄라~ 팔당역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대여하고 라이딩을 시작했다. 팔당역에서 자전거표지판을 따라가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나게 된다. 남한강을 끼고 곧게 뻗은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하면 파노라마처럼 주변 풍경이 스치고 지나간다. 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중간중간에 옛 철로도 만나고, 차로 스치듯 지나가며 보았던 팔당댐도 만날 수 있다.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물 한 모금 마시며 팔





당담과 강변 길의 아름다운 조화를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팔당댐을 지나면 봉안터널을 만날 수 있는데, 햇살 아래 있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오니 시원한 바람과 은은한 조명에 있어 몽환적이면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나아가다 보니 능내역에 다다랐다. 폐역으로 남아있는 능내역 안과 밖에는 역사가 담긴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옛 모습을 간직하며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또한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능내역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쉬기에도 적격이다. 하지만 능내역 주변에 사람들과 자전거가 많으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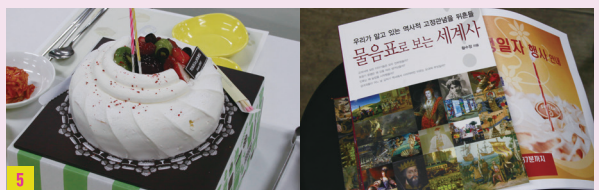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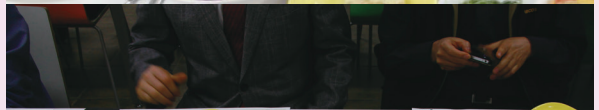
통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내역에서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다. 휴식을 취한 뒤라 힘차게 페달을 밟으니 어느덧 북한강 철교에 다다랐다. 아름다운 북한강 철교와 그 옆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이 멋진 풍경을 자아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을 감상하며 돌아가는 길은 또다른 행복을 선사했다.

팩캠가족 여러분, 겨우내 추위에 웅크리고 있던 몸과 마음 신나게 페달을 밟으며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맞은 팩کم 직원들을 축하해주는 팩کم만의 특별한 ‘생일 축하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 생일자 주인공들을 위해 매달 다른 메뉴로 준비된 특별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한 달에 한번, 그 달에 생일을 맞은 직원을 위한 생일자 행사가 있습니다. 2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는 사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전달됩니다. 3 생일자 행사가 다가오면 해당 달에 생일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 생일이 적힌 포스터가 식당이나 계단의 게시판에 붙여집니다. 4 아구찜+해물파전, 불고기전골, 쌀국수+월남쌈, 프랑수아 요리 등등 기존에 회사 식당에서 맛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5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는 사장님께서 직접 책을 선물해 주십니다. 인쇄 전문 회사인 팩کم 그룹에 있어 가장 뜻 깊은 선물이겠지요? 책의 첫 장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적어주신 감동적인 생일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팩کم 식당 직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맛있는 점심 식사와 사장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 함께하는 팩کم 생일 축하 행사는 팩کم 그룹 직원 모두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외영업부 창조팀 신입 사원 이연지

# 팩کم코리아에 첫 발을 들이다!



새벽 다섯 시반.  
취준생(이라 쓰고 백수라고 읽는) 시절에는 밤을 새우고 잠이 들곤 하던 시간입니다. 현실의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잠 못 이루...지는 않았고 그저 잠들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밤을 지새워 공부를 했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저만치 치워두고 저는 영화를 보거나, 낙서를 하거나, 하릴없이 휴대폰을 뒤적거리거나, 혹은 책을 읽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눈꺼풀이 무거워오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새벽 다섯 시 반에 번쩍 눈을 뜨고 출근한지 어느새 2주차가 되었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에 말하는 새벽 냄새는 아직도 생소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로 한 시간 십 분을 달리고, 또 제 튼튼한 다리로 십오 분을 더 걸어서 팩کم코리아로 옵

니다. 멋진 책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현풍이가 있는 곳! 첫 회사 생활인만큼 얼떨떨하고 정신도 없지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더 큼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책을 제가 만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능하다면, 열심히 해서 팩کم이 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원 본부장님께서 이 '가능하다면'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라고 하셨는데, 뭐든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너무도 뻔한 말이지만 뻔하기에 잊기 쉬운 '초심',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앞으로 뭐든 즐겁게 배우고 열심히 하는 이연지가 되겠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드라마, '미생'을 보고 회사라는 곳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곤 했는데, 말도 많이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상냥히 가르쳐주시는 선배님들께 이 글을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모든 팩کم 가족 분들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승진자 인터뷰

지난 1월, 팩컴에서는 인사 발령과 함께 승진한 임직원 16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 승진자는 모두 4명이었는데요 평소 꼼꼼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인정 받는 생산관리부의 신규현 대리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 1. 팩컴에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과정과 준비를 거쳐 입사하게 되었나요?

2007년 8월 28일 오후 1시에 입사를 했어요. 7년이 넘었지만 그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첫 출근인데 불구하고 저녁 9시까지 교육을 받고 퇴근을 했어요ㅠ\_ㅠ 그래서 더욱 잊혀지지 않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팩컴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꼭 입사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던 계기는, 당시 관리 본부 이원성 차장님(지금은 부장님)의 너무도 친절한 설명 덕분이었지요. 그땐 참 친절하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

### 2. 신입사원이었을 때에 이 곳에서 일하며 느꼈던 점을 말해주세요.

모든 것이 어색했던 거 같아요. 직원들도, 내 자리도 모든 것이 어색했죠. 하지만 현장에 내려가는 게 좋았어요. 근무하시는 분들마다 미소 띤 얼굴로 작업하고 계시는 모습이 멋져 보였거든요. 나중

에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모두들 젊어 보이시기도 했구요. 또 인사를 하면 참 반갑게 인사를 받아 주셨어요. 내가 좋은 회사에 잘 들어왔구나, 오래도록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 3. 그간 일 하면서 기쁘고 뿌듯했던 일, 슬프거나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텐데요, 한 가지씩 이야기해주세요.

일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기억은 제가 입사했을 당시 제 자리가 공석이라 업무가 많이 밀려 있을 때예요.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같이 야근을 했었어요. 하지만 밀려있는 모든 업무를 처리했을 때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뿌듯하고 날아갈 듯 했지요.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당시 관리부에 계셨던 이사님의 퇴사로 인해 그 업무가 제게 왔을 때였어요. 처음 접하는 업무라 어려웠고, 갑자기 맡은 덕에 업무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주말까지도 출근을 하면서 일을 처리했어요. 그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

고 응원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께 너무도 감사하죠.

#### 4. 올해 대리로 승진하셨는데, 요즘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요?

기분은... 솔직히 정말 얼마 동안은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이게 정답인 거 같네요! ^^ 하지만 ‘승진’이란 단어 자체가 저에겐 아직 어색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를 대리님이라 부르면 어색해서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다, 이름을 부르면 그때서야 대답을 할 때도 있어요. 업무에 임하는 마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거 같아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을 잊지 않고 일을 하고 싶어요. 요새 자꾸 그 설렘이 잊혀져 가는 거 같아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보려고 해요.

#### 5. 진행하셨던 업무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애착이라고 하기보단 고맙고, 알미운 업무라 하고 싶어요. POP가 있기 전, 제본사업본부에서 작업일보를 수기로 썼어요. 그 업무 덕분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울 수 있었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층부터 4층까지 열 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했기에 살이 찌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운 반면, 그 업무로 인하여 심하게 꾸지람도 들어야 했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짜증도 낼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업무로 인한 고마움이 제겐 더 컸으므로 고마운 업무라 말하고 싶어요.

#### 6. 요즘 생활하시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퇴근하고 지인들과 술 한 잔 하는 게 취미일 정도로 자주 술을 마셨는데, 요즘엔 요리가 너무 재미있어요. 집에 가면 꼭 뭔가를 만들어서 저녁을 먹거든요. 대충 해도 너무 맛있는 걸 보면 제가 요리 솜씨가 없진 않은 거 같아요! ^^ TV에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레시피를 꼭 보

고 메모를 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단어를 집중적으로 외워보곤 있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작하다 그만두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쉬을까요?

#### 7. 올해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개인적인 꿈이나 목표라면,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걸로 집에서 많은 압박이 있기도 하고ㅠ\_ㅠ 하지만 어딘가에 제 인연이 있다는 걸 믿고 기다려 보고 있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회사에서의 꿈이나 목표라면, 제가 7년도 넘게 있었는데도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현장에 가서 직접 기계도 만져 보고 싶은걸요! ^^

#### 8. 마지막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팩کم 가족에게 한마디해주세요.

이 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웃고 우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힘들고 짜증난다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옆에 있는 동료 얼굴 한번 더 보고 웃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성내면 한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늙는 것보단 젊어지는 게 훨씬 좋죠! ^^ 그보다 꼭 하고 싶은 말은, 건강을 챙기시라는 말이에요. 건강해야 웃기도 하고 일도 하죠. 모두가 건강하게 웃으면서 일하는 화목한 회사 만들어 보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서 ‘에~ 가식적이네~’ 하실 거 같기도 한데 그냥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해요. ^^

평소 신규현 대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리님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면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주말 근무까지 불사하셨던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대리님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4월, 잔인한 달을 닫고 일어서기!



T. S. Eliot의 황무지 (The Waste Land) 중  
일부에 이런 시귀절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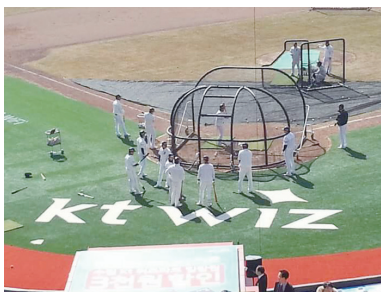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지요.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주었습니다.

지난 해 4월, 세월호 사건이 그러했듯이 혹은 우리 회사 어느 이사님의 젊은 따님이 하늘 나라로 간 것도 이 죽일 놈의 봄날이라서 그런지 유독 올해의 봄은 더욱 잔인하게 느껴진다. 새 생명들이 피어 나는 찬란한 봄날, 상상하고 역동적이어야 할 이 계절에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건들이 우리를 가슴 아리게 하고 많이 슬프게 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혹은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같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애도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로도 유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자제하고 싶다. 하지만 살아야 할 사람은 또 살아야 하니까 우린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잠이 오면 자야 한다. 그것이 더 슬프겠지만 우린 이미 잔인해져 버린 이 계절을 닫고 일어서야 한다.

더불어 지난 해 우리 회사의 부진했던 매출 실적들을 올해는 만회해야 하는 그 분수령이 4월이라 반드시 우리는 잔인한 4월을 이기고 닫고 일어서야 한다. 꽃이 피면 즐겁게 바라보며 같이 웃고 신록이 짙어지면 싱그럽게 같이 즐기는 그런 4월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 프로야구 신생 제10구단의 KT Wiz Park를 소개합니다!



드디어 팩컴 군포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야구장이 생겼다. 바로 KT Wiz Park다. 2015년 프로야구에 경기도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KT Wiz 프로 야구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기자는 KT 구단의 팬은 아니지만 회사 근처에 30분 내로 달려갈 수 있는 야구장이 생겨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려 한다.

KT Wiz Park, 즉 이 수원 야구장은 버스(300버스가 제일 빨리 달려가니 참고하세요)로는 35분, 자동차(버스전용차선 이용하세요)로는 25분 거리에 있다. 기자는 얼마 전 이 곳에서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하였다. 먼저 1루와 3루 제일 가까이 관람할 수 있는 익사이트존 좌석은 의자가 넓고 깨끗하다. 다만 우천시에는 우산이 필수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모든 기물을 새로이 공사해서인지 좌석의 종류가 다른 경기장에 비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외야석도 커플, 가족석으로 구분되니 처음에 이 곳에 간다면 좌석 종류를 확인하다 1회 말이 끝날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

같이 간 친구의 말에 의하면 KT 구장이라 그런지 KT 와이파이기가 엄청 빠르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KT 구장 주변에 있는 야구관람의 단짝 친구인 치킨과 맥주가 매우 빠르고 시원하게 배달되고 있어 이 곳을 찾은 야구팬들이 무척 만족한다는 후문이다.

참고로 2015년 프로야구는 총 10개 구단이 3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정규리그를 시작하며, 월요일과 우천시를 제외하고 팀당 144경기를 한다. 입장료는 내야 10,000~20,000원대, 외야 8,000~9,000원이고, 예매는 필수다. 인터넷 예매는 경기 일주일 전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 빅경기인 경우에는 오전 11시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도 하지만, 심야에 예매 취소가 종종 있어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다.













## 2015년 팩컴그룹 사무식



팩컴그룹은 2015년 첫 출근일인 1월 5일 (월) 본사 5층 사내 식당에서 올미년 청양 띠의 해 사무식을 개최했다.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이사, 팩컴AAP(주) 최숙 대표이사 외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팩컴인의 불굴의 목표 달성 의지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2015년이 되어야 하며, [1. 품질, 가격, 효율성, 납기, 서비스 향상 2. 임직원 모두 명품 장인 의식으로 무장 3. 수익성 중심 조직으로 체질개선 4. 내, 외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 고객과의 관계 유연화 5. 모든 생산 지표는 생산성과 연계하여 측정가능 지표화]”라는 김경수 대표이사님의 신년사가 있었으며, 안명철 이사, 이병길 이사, 황철원 본부장 등 직원들의 승진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끝으로 전 직원과 임원진은 일일이 상호간의 악수를 하며 올미년의 희망찬 새해 첫 발을 시작하였다.

## 2015년 팩컴그룹 인사발령

2015년 1월 5일 팩컴그룹 인사발령 사항 (16명)

### 1. 본부장 -> 이사 승진

인쇄사업본부 이병길 이사 / 제본사업본부 안명철 이사

### 2. 부장 -> 본부장 승진

해외영업부 황철원 본부장

### 3. 과장 -> 차장 승진

제본사업본부 이정근 차장

### 4. 대리 -> 과장 승진

관리본부 유미애 과장 / 해외영업부 홍석준 과장 / 해외영업부 김진아 과장

### 5. 사원 -> 대리 승진

인쇄사업본부 윤천만 대리 / 인쇄사업본부 김용현 대리 / 인쇄사업본부 조태성 대리  
제본사업본부 김성태 대리 / 제본사업본부 김주일 대리 / 생산관리부 신규현 대리  
관리부 조형주 대리 / 경영기획부 김성기 대리 / 경영기획부 김수희 대리

## 올미년 청양띠의 해 직원

양띠해의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갖고 2015년을 맞이한 직원을 소개한다.

팩컴코리아(주) 경영기획부 신동훈 부장

경영기획부 김익성 과장

안산공장 나중국 사원

팩컴AAP(주) 조성길 상무

제본사업본부 황영걸 과장 / 정대성 과장 / 김정현 대리 / 표창룡 사원 / 차정석 사원

인쇄사업본부 신정학 과장 / 윤천만 대리

## 생산 품질 평가 품평회 개최



팩컴AAP(주)는 지난 1월 9일, 2014년의 생산 품질 평가 품평회를 5층 사내식당 강당에서 최숙 대표이사와 120여 명의 직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지난 해 발생한 품질사고의 유형과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생산

관리 김희수 차장이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는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을 하여 분석한 자료를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여 발생 원인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품질사고백서도 만들었다.

##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지난 1월 13일에는 팩컴의 각 부문별, 공정별 직원을 선발하여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을 군포보건소에서 실시하였다. 금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구조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군포공장, 안산공장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2014년 12월에 2시간, 2015년 1월에 2시간 모두 4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이수하였다. 이로써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119 출동 후 도착할 때까지의 직원들 응급사항을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 제42회 상공의 날 모범관리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팩컴코리아(주) 최숙 전무께서 지난 3월 1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관리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제8회 군포상공대상 군포시장 표창 수상



지난 3월 18일 군포 관내 에스톤하우스에서 제42회 상공의 날을 기념하여 제8회 군포상공대상 및 지역경제발전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팩컴AAP(주) 최숙 대표이사께서 군포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 대한인쇄문화협회 모범근로자 협회장 표창



지난 2월 12일에는 서울 리호텔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 제67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모범근로자 표창에서 팩컴AAP(주) PREPRESS 사업부의 서무광 과장이 인쇄업계에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대한인쇄문화협회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쇄조합상 표창



지난 2월 12일에는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

동조합 신사옥에서 개최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쇄조합상 표창을 팩컴코리아(주) 해외영업부 한혜옥 차장, 팩컴AAP(주) 인쇄사업본부 윤석도 과장 등 두 명이 수상을 하였다.

### 화창한 봄, 결혼을 축하합니다



봄철을 맞아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팩컴코리아(주) 해외영업부 도전팀의 박선희 사원이 신랑 김충기 씨와 범계 엠클레스컨벤션 7층에서 화축을 올렸다. 박선희 사원은 입사 후 소개팅으로 신랑을 만나 2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 새로운 가족을 환영합니다

1/4분기에 입사하여 팩컴그룹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 팩컴AAP(주) 제본사업본부

툼슨팀 이상열 사원 / 중철팀 윤창미 사원 / 중철팀 안인규 사원 / 재단팀 신상천 사원 / 무선팀 김길수 사원

### 팩컴코리아(주)

### 해외영업부 창조팀 이연지 사원

한편 지난 1월 말일자로 정년을 맞이한 제본사업본부 조연일 님 축하드리며, 조연일 님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PREPRESS 소부팀의 김교원 과장은 작년이었던 2014년 8월 정년퇴직 후 올해 2015년 3월 소부팀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여 소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지난 2014년 결혼을 한 안산공장의 강남희 사원이 작년 12월 21일 예쁜 공주님 강민서의 아빠가 되었다. 아빠처럼 키가 크길 바란다는 강남희 사원의 희망처럼 민서 양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 건강검진 실시



지난 3월 10일, 11일에는 팩컴그룹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군포 관내에 있는 샘병원에서 검진을 왔으며 올해부터는 샘병원과 협약을 맺어 팩컴그룹 직원이 샘병원 계열 병원(지샘병원, 샘한방병원, 샘여성병원, 안양샘병원)의 진료 및 장례식장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었다. 직원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리본부 이원성 부장(031-428-8581)에게 하면 된다.

### 팩컴그룹 국제완구공업협회 인증 획득

팩컴그룹은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지난 3월 20일 국제완구공업협회의 국제 인증심사 ICTI AUDIT를 통과하였다. 이는 완구수출업체들의 필수 인증심사로서 공장 및 근로자, 환경, 복지 등 포괄적인 ICTI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국내 인쇄업체로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팩컴은 국제적인 완구업체의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